

오다 노부나가(1534~1582)는 1567년에 이나바 산성을 수중에 넣은 뒤, 고텐과 군사 요새를 짓는 등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성으로 개조했다. 노부나가는 이 성에서 천하 통일을 위한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다른 다이묘의 사신, 귀족 관료, 심지어는 외국인 선교사까지 다양한 손님들을 초대했다. 노부나가는 화려한 건축과 다양한 시설물들을 그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위엄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강조했던 것이다.

산 정상에서는 노비 평야의 저 너머까지 펼쳐진 노부나가의 영토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1532~1597)와 귀족 관료 야마시나 도키쓰구(1507~1579) 등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은 산 정상에서 보이는 인상적인 풍경과 노부나가의 훌륭한 환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세상에 전했다.